DOI: 10.15738/kjell.24..202403.194



#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ISSN: 1598-1398 / e-ISSN 2586-7474 http://journal.kasell.or.kr

# Wh-so-ever 무조건문의 화용적 강조: 초점과 양보 효과

강아름 (충남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ember 27, 2023 Revised: March 5, 2024 Accepted: March 12, 2024

Arum Ka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nguist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el: 42-821-6393 E-mail: arkang@cnu.ac.kr

#### **ABSTRACT**

Kang, Arum. 2024. Strengthening effect of wh-so-ever unconditional: Interaction between focus and concessivenes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194-21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emantico-pragmatic role of infix so combining with whever unconditional.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strengthening effect and concessive meaning induced by so in wh-ever unconditional. Based on Rawlins (2013) and Hong (2010), we analyze the dual role of so as a focus marker and a pragmatic illocutionary operator. As a focus marker, so generates an expanded set of alternative propositions in possible worlds. As an illocutionary operator, so establishes an ordered pragmatic scale having universal quantification. Consequently, this results in a heightened concessive effect and an intensified emphatic meaning. The contribution of current work lies in clarifying the meaning of infix so, which has not been previously explored in terms of the pragmatic aspect.

#### **KEYWORDS**

infix so, wh-ever unconditional, focus marker, emphatic effect, concessive meaning, pragmatic illocutionary operator

## 1. 서론<sup>1</sup>

본고는 삽입사(infix) so 와 결합하는 wh-ever 무조건문(wh-ever unconditional)의 의미화용적 강조 효과(emphatic effect)에 대해 연구한다. 대표적인 wh-ever 무조건문 문장은 아래와 같다.

(1)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문장 (1)은 주절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와 그 앞에 위치한 wh-ever 부사절로 시작하는 무조건절로 구성된다. 무조건절에서 wh-ever 로 시작하는 부사절은 주절과 의미적으로 특정한 관계로 해석이 된다. 주절 명제인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의 진리치는 wh-ever 부사절에서 wh-ever 의 변항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독립적으로 (즉, "무조건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즉, 존이 요리한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조건에 상관없이, 명제 "마늘이 존의 핵심 재료이다"의 진리치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wh-ever 부사절을 무조건절이라고 한다(Zaefferer 1987).

무조건문의 의미 해석의 특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제안되어 왔다. 첫째, wh-ever 무조건문은 if 를 사용한 문장과 동일한 해석을 발생시킨다. 아래 예문 (2)에서 if 절은 (1)의 wh-ever 절에 대체되었으며 무조건 해석은 John 이 요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변항 x 가 사용되어 표상된다.

(2) If John cooks x,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둘째, wh-word 에 기반한 wh-ever 무조건문은 형태적으로 삽입사 so 와 결합하여 의미화용적으로 강조적(emphatic) 해석의 힘을 더할 수 있다. (3)은 의미적 강조에서 중립적인 반면, so 와 결합한 (4)의 wh-ever 무조건문은 강조 해석(emphatic interpretation)을 가진다.

(3)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neutral

(4) What<u>so</u>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emphatic

전통적으로 부사 so 의 의미는 정도부사로서 강조사(intensifier)의 역할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so 를 정도부사로 간주할 경우 (4)의 강조 해석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의미적 측면에서 정도부사 so 의 역할을 설명하려면 결합하는 술어의 단계성을 높여야 하겠지만, (3)의 so는 whatever 과 결합하였으므로 정도부사의 역할로는 (4)의 강조 의미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wh-ever 무조건문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적 특징은 양보 효과(concessive effect)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양보란 하나의 사태가 다른 사태에 관여한다는 기대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함'이 '성적 오름'의 사태에 관여한다는 기대가 있을 것이다. 양보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와 같이

\_

<sup>&</sup>lt;sup>1</sup> 날카롭고 유익한 심사위원의 지적이 본 논문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고의 모든 잘못은 필자에게 있다.

기대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영어에서는 whatever 에 의해서 조건적 양보가 실현된다고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wh-ever 무조건문은 양보 해석을 발생시킨다. 마늘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요리인 에그 베네딕트에도 그 기대를 부정하여 마늘이 사용된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 (5) Whatever John cooks, even egg benedict,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 No matter John cooks, even egg benedict,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반면 마늘이 응당 많이 들어갈 것이라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마늘 파스타에 기대에 부응하여 마늘이 핵심 재료라는 해석은 wh-ever 무조건문에서는 어색하다.

- (6) #Whatever John cooks, even garlic pasta,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 #No matter John cooks, even garlic pasta,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5)의 문장에 삽입사 so 가 결합했을 때, 양보 효과는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양보의 대상이되는 가능성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는 마늘이 요리 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딸기 케익까지에도 마늘이 핵심 재료라는 것으로 so가 양보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로 사용된다.
  - (7) Whatsoever John cooks, even strawberry cake,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 No matter John cooks, even strawberry cake,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위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본고가 가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wh-ever 무조건문에서 삽입사 so 가 사용될 때, so 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wh-so-ever 무조건문의 강조 의미해석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wh-ever 무조건문의 의미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질문에 대한 본고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wh-ever 무조건문에서 삽입사 so 는 초점 표지자(focus marker) 역할을 하며, 대안 명제(alternative proposition)를 발생시킨다. 이때 so 와 결합한 해당 명제(prejacent proposition)는 'wh-ever XP'의 대안들(alternatives)보다 화용적으로 강하다. 즉, 더 주목할 만하거나(noteworthy) 정보가 풍부한(informative) 문장이다. 둘째, 초점 표지자 so는 화용적 강조 연산자(pragmatic emphatic operator; Hong 2010, Krifka 1995)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삽입사 so 는 초점 표지자이며 담화 상에서 명제 대체항을 발생시키며 이들 간에 척도를 발생시켜 강조 해석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극어(polarity item)의 수사적 강조 기능과도 관련이 깊은데, 무조건문에서 wh-so-ever는 문맥적으로 결정된 척도 내에서 최대한의 극성의 값을 표현하며 강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양보 효과와 강조 해석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 장에서는 무조건문을 조건문의 접속(conjunction of conditional)으로 분석한 Rawlins (2008, 2013)의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3 장에서는 Krifka (1995)에 기반하여 양보 효과를 화용적 강조를 통해 분석한 Hong (2010)의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4 장에서는 *wh-so-ever* 무조문에서 *so*의 역할을 분석한다. 5 장은 결론이다.

# 2. wh-ever 무조건문: Rawlins(2013)

Rawlins (2008, 2013)는 (8)의 *wh-ever* 무조건문은 (9b)의 if 를 사용한 조건절의 연접(conjunction)과 동일하다고 간주하였다.

(8)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wh-ever 무조건문]

- (9) a. If John cooks x,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f 조건문]
  - b. If John cooks pizza,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and if John cooks pasta,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If 조건절의 연접]

Rawlins는 무조건문은 명제 대체항의 집합을 지시하고 따라서 의미적으로 의문문과 동일하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1)의 문장은 (10)과 같은 LF 를 가진다고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Q 는 의문문 연산자, □는 화자의 믿음에 대응하는 세계에 대해 전칭 양화를 하는 전칭 양화사(a universal quantifier over worlds), Op 는 Q 에 의해 소개된 명제 대체항에 대한 전칭 양화를 하는 의미 연산자이다.

(10) Op [[ Q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각 명제 대체항은 그 자체로 조건문의 전건(antecedent)을 발생시키고 여기서 후건(consequent)의 진리치는 대체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10)의 LF 에 대한 형식적 표상 분석은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친다.

- (11) wh-ever 무조건문 분석의 네 단계(Rawlins 2013)
  - I. [Q whatever John cooks]: Hamblin 스타일의 의문문으로 분석
  - II. [□ [Q whatever John cooks]]: 평서문 조건문과 무조건문의 통합
  - III. [[ㅁ [Q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양태를 합성(pointwise functional application)으로 제한
  - IV. Op [[□ [Q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Op 가 가장 높은 범위로 적용

각 단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첫째, wh-ever XP는 Hamblin 스타일의 의문문으로 분석된다. Rawlins 는 whatever John cooks 를 의문 형태의 CP로 분석하며, 이는 Hamblin (1973)에 따라 아래와 같이 "λw. Mary cooks x in w" 형식의 명제 집합(a set of propositions)을 지시함을 보였다.

- (12) [[whatever John cooks]]
  - a. =  $\lambda p_{st}$ .  $\exists x [p = \lambda w . John cooks x in w]$
  - b. {λw. John cooks pizza in w, λw. John cooks pasta in w, ... }

둘째, Kratzer (1977), Heim (1982)을 따라, Rawlins 는 (13)과 같은 평서문 조건문을 무조건문과 통합하였다. 조건문과 무조건문의 논리적 등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명제 집합  $\{p1,\cdots,pn\}$ 에서 모든 명제 대체항 pi 에 대해 무조건문이 참이라면, 조건문 "if pi, q"는 참이다. (13)의 if-절은 무표적인 필연성 양태 제한자(a covert necessity modal)를 제공한다. LF 구조는 (14a)와 같으며, 양태는 (14b)와 같이 정의된다. (15)에서 양태는 문맥에서 제공되는 접근성 함수(accessibility function)  $F_c$  에 따라 평가 세계(the world of evaluation)에서 접근 가능한 세계를 양화한다.

- (13) If John cooks pasta,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14) a. [[ $\square$  John cooks pasta]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b.  $[\![\square]\!]^c = \lambda p_{st}$ .  $\lambda q_{st}$ .  $\lambda w. \forall w' \in F_c(w) [p(w') \to q(w')]$  (type  $\langle st, \langle st, st \rangle \rangle$ )
- (15)  $[\![ \Box ]\!]^c (\lambda w. \text{ John cooks pasta in } w)(\lambda w. \text{ Mary was happy with it in } w)$ =  $\lambda w. \forall w' \in F_c(w)$  [John cooks pasta in  $w' \to \text{Mary was happy with it in } w'$ ]

셋째, Rawlins 는 *wh-ever* 무조건문의 LF 에도 무표적 양태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wh-ever* CP 는 양태 제한자(the restrictor of the modal)를 제공하며, LF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6) [[whatever John cooks]] <sup>c</sup>
  - a. =  $\lambda P_{\langle st, st \rangle}$ .  $\exists x [P = \lambda q_{st}. \lambda w. \forall w' \in F_c(w) [John cooks x in w' \to q(w')]]$
  - b.  $\{\lambda q_{st}. \lambda w. \forall w' \in F_c(w) \text{ [John cooks pasta in } w' \to q(w')], \lambda q_{st}. \lambda w. \forall w' \in F_c(w) \text{ [John cooks pizza in } w' \to q(w')], \dots \}$

위에서 wh-ever CP는 양태를 합성(pointwise functional application)으로 제한한다. whatever Mary cooks 는 \(\lambda\)w. Mary cooks x in w 형태의 명제 집합을 나타낸다. (17b)에서 양태는 명제를 제한자 논항으로 필요로 한다. Whatever John cooks 와 양태 운용소(modal operator)는 합성을 통해 결합된다(예: Hamblin 1973, Kratzer and Shimoyama 2002).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이 제공하는 명제는 합성의 논항으로 취해져 (17)의 결과를 낳는다. (18)은 양태화된 명제들의 집합(a set of modalized proposition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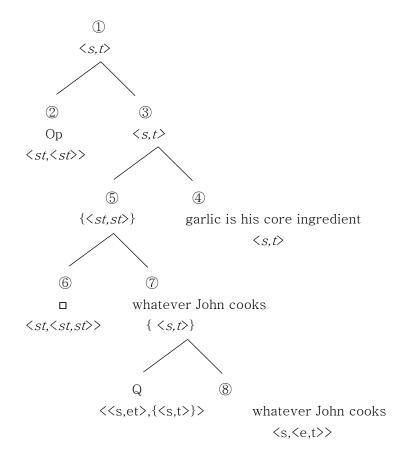
- (17) [[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c
  - a. =  $\lambda p_{st}$ .  $\exists x [p = \lambda w . \forall w' \in F_c(w) [John cooks x in w' <math>\rightarrow$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 b.  $\{\lambda w. \ \forall w' \in F_c(w)[\text{John cooks pasta in } w' \to \text{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 w'], \ \lambda w. \ \forall w' \in F_c(w)[\text{John cooks pizza in } w' \to \text{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 w'], ... \}$
- (18) {if John cooks pasta,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f John cooks pizza,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넷째, (19)의 의미를 가진 Op 가 (18)의 명제 집합에 적용되어 최종 의미를 제공한다. 이는 사실상 if John cooks x,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형태의 조건문들의 연접이다.

- (19)  $[[Op]] = \lambda P_{\langle st,t \rangle}. \ \lambda w. \ \forall p \ [P(p) \rightarrow p(w)]$
- (20) [OP [[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21) [[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c
  - a. =  $\lambda w. \forall p \ [\exists x \ [p = \lambda w'. \forall w" \in F_c(w') \ [John cooks \ x \ in \ w" \rightarrow garlic \ is his core ingredient in \ w"]] \rightarrow p(w)]$
  - b. =  $\lambda w$ .  $\forall w' \in F_c(w)$  [John cooks pasta in  $w' \to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  $\forall w' \in F_c(w)$  [John cooks pizza in  $w' \to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 ...

이상의 합성적 의미 연산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2)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a.  $[[\&]] = [[whatever John cooks]] = \lambda w.\iota xcooks(x)(John)$  in  $w \land thing(x)$  in w
- b. [[⑦]] =  $\lambda p_{st}$ .  $\exists x [p = \lambda w . John cooks x in w]$ 
  - =  $\{\lambda w$ . John cooks pasta in w,  $\lambda w$ . Mary cooks pizza in w, ...  $\}$
- c. [[⑥]] =  $\square$ =  $^c$  =  $\lambda p_{st}$ .  $\lambda q_{st}$ .  $\lambda w$ .  $\forall w' \in F_c(w) [p(w') \rightarrow q(w')]$
- d. [[⑤]] =  $\lambda P_{\langle st, st \rangle}$ .  $\exists x [P = \lambda q_{st}. \lambda w. \forall w' \in F_c(w) [John cooks x in w' \to q(w')]]$ =  $\{\lambda q_{st}. \lambda w. \forall w' \in F_c(w) [John cooks pasta in w' \to q(w')],$  $\lambda q_{st}. \lambda w. \forall w' \in F_c(w) [John cooks pizza in w' \to q(w')], ... \}$
- e.  $[[\mathfrak{A}]] = \lambda w$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 f. [[③]] =  $\lambda p_{st}$ .  $\exists x [p = \lambda w . \forall w' \in F_c(w)$  [John cooks x in  $w' \to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 =  $\{\lambda w. \forall w' \in F_c(w) \text{ [John cooks pasta in } w' \rightarrow \text{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 w'], \lambda w. \forall w' \in F_c(w) \text{ [John cooks pizza in } w' \rightarrow \text{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 w'], ... }$
- g.  $[[@]] = OP = \lambda P_{\langle st.st \rangle}$ .  $\lambda w. \forall p [P(p) \rightarrow p(w)]$
- f. [[①]] =  $\lambda w. \forall p \ [\exists x \ [p = \lambda w'. \forall w'' \in Fc(w') \ [John cooks \ x \ in \ w'' \rightarrow garlic \ is his core ingredient in \ w'']] \rightarrow p(w)] = \lambda w. \forall w' \in Fc(w) \ [John cooks \ pasta \ in \ w' \rightarrow garlic \ is his core ingredient in \ w'] \& \forall w' \in Fc(w) \ [John cooks \ pizza \ in \ w' \rightarrow garlic \ is his core ingredient in \ w'] \& ...$

본장에서는 wh-ever 무조건문을 조건문의 연접과 논리적인 등치관계로 분석한 Rawlins 의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핵심은 wh-ever 무조건문을 Hamblin 스타일의 의문문으로 간주하여 wh-ever CP 의 대체항이 조건문 연접을 구성하는 집합의 원소 역할을 한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위 논리적 연산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wh-ever 무조건문의 주요 의미특징인 양보 해석과 강조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조건문은 wh-ever 무조건문과 결합하는 삽입사 so 에 대응하는 표지와 결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wh-ever 무조건문이 발생시키는 것과 동일한 양보해석과 강조 효과를 가질 수 없다.

- (23) Whatsoever John cooks, <u>even strawberry cake</u>,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 If John cooks something, <u>even strawberry cake</u>,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23)의 퍼즐은 양보해석과 강조 효과가 합성적 논리의미적인 측면이 아닌 화용적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wh-ever 무조건문에서 so 가 강조 해석에 대해 가지는 기여는 진리 조건적인 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용적인 측면에서 언표내적 연산(illocutionary operation)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양보 효과의 화용적 강조에 대한 Hong(2010)의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 3. 양보문의 강조 해석: Hong(2010)

본 장에서는 Krifka(1995)의 모델을 통해 한국어 양보 구문을 설명한 Hong(2010)의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Krifka(1995)는 문장 내 초점의 의미적 표현을 위해 배경(background)과 초점(focus)을 사용하여 배경-초점 구조인 〈B,F〉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F 는 초점화된 표현(the focused expression)의 의미이고, B 는 주어진 문장에서 초점을 람다-추출한 것(lambda-abstraction of the focus)이다. 이를 통해 합성적 함수 적용(a compositional function application)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4a)와 같이 John 이 초점을 받을 경우 〈B,F〉구조를 도입하고, 이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된 초점을 동반한 문장의 배경-초점 구조는 (24b)와 같다.

- (24) a. [John]<sub>F</sub> introduced Mary to Sue.
  - b.  $\langle B, F \rangle : \langle \lambda x \lambda w.introduced_w(x,m,s), \lambda P \lambda_w.P_w(j) \rangle$

여기서 초점을 받은 이름 'John'은 속성의 집합인  $\lambda P \lambda_w.P_w(j)$ 을 지시한다. 배경인 B 가 초점 받은 대상 개체인 F 를 논항으로 취하여 합성 연산이 진행되면  $\lambda w.introduced_w(j,m,s)$ 의 결과를 갖는다. 여기에 더해 초점을 발생시키는 강조 해석과 같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언표내적 연산자의 추가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Hong 은 한국어 첨가 표지자(additive marker) '도'를 다음과 같이 초점을 나타내는 표지자로 간주하였다.

### (25) 존[도]<sub>F</sub> 왔다.

Hong 은 한국어 '도'가 초점을 받을 경우 항등 함수  $\Lambda X \Lambda w. X_w$ 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도'의 의미적 기여는 어떠한 진리 조건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닌 언표내적 연산자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도'가 포함된 문장의 진리 조건적 의미와 '도'가 없는 문장의 진리 조건적 의미는 동일하다. 언표내적 연산자가 기여하는 의미는 (26b)의 추가적인 적합성 조건(felicity condition)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예문 (25)의 의미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26) ASSERT<sub>ADD</sub>(<B,F>) w.r.t. c (Hong 2010, p. 176, (16)):
  - a.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 B(F) 는 단언된다. 즉, c는 B(F)에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공통 토대(common ground) c'를 구성하고 c'=c∩B(F) 과 a같다.
  - b. 적합성 조건(Felicity Conditions): 명제 대체항 F'가 존재하며 F와 다르다. 이때 c는 B(F')를 허용한다. 따라서  $\exists$ F'[F' $\in$ ALT(F)  $\land$  F' $\neq$ F  $\land$  c $\cap$ B(F')=c]

여기서 입력 맥락(the input context)은 대안 명제들을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존 $[\Sigma]_F$  왔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27) ASSERTADD(<λΤλw.Tw(λxλw.camew(x)), λPλw.Pw(j)>) w.r.t. c (Hong 2010, p. 177, (17)):
  - a. 명제 내용: c∩λTλw.Tw(λxλw.camew(x))(λPλw.Pw(j)) = c∩λw.camew(j)
  - b. 적합성 조건: ∃F'[F'∈ ALT(λPλw.Pw(j)) ∧ F'≠λPλw.Pw(j) ∧ c∩B(F')=c]

(27a)에서 화자는 John 이 온 것을 단언한다. 입력 공유 지식(the input common ground) c 는 John 이 온 가능성이 있는 세계들의 집합인 c∩λw.camew(j)으로 업데이트된다. 진리조건적으로 말하면, John came, too 는 John came 과 같다. 그러나 (27b)의 적합성 조건은 더나아가 John 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을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요구 사항은 주어진 문장이 입력 문맥과 함께 업데이트되기 전에 이미 충족되어야 한다 (즉, c∩B(F")는 c 자체와 동일해야 함). '도'의 추가적 의미는 문장의 단언에 대한 충족 조건의일부로 간주된다.

또한 '도'는 첨가 표지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양보의 표지로도 사용될 수 있다.

(28) [돈이 없] 어도, 나는 마음이 부자이다

'도'가 양보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초점 표지자로 사용될 때의 분석은 (29)와 같다. 아래의 양보구문에서 '도'는 언표내적 연산자 ASSERTCON 의 역할을 한다. 양보의 '도'는 첨가의 '도'와 적합성 조건이 다른데 첨가의 '도'가 가지는 앞선 (27)의 정의에서 (29bii)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29bii)는 현재의 명제는 대체 명제항보다 입력 맥락(input context)에 의해 허용될 가능성이 낮음을 나타낸다.

- (29) ASSERTCON(<B,F>) with respect to c (Hong 2010: 180, (22)):
  - a.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 B(F) 는 단언된다. 즉, c는 B(F)에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공통 토대(common ground) c'를 구성하고 *c'=c*∩B(F) 과 같다.
  - b. 적합성 조건(Felicity Conditions):
    - i. 명제 대체항 F'가 존재하며 F 와 다르다. 이때 c 는 B(F')를 허용한다.
       따라서 ∃F'[F'∈ALT(F) ∧ F'≠F ∧ c∩B(F')=c].
    - ii. 일반적으로, c 는 B(F)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즉, c∩B(F)는 c∩B(F')보다 발생 가능성이 낮다.

나아가 Hong 은 양보 구문이 추가적으로 강조를 받는 경우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예문 (31)에서 초점을 표지하는 높은 음성적 강세가 양보절의 '촘스키가'에 주어졌다. 이때 이음성적 강세를 동반한 초점은 맥락 상 척도 함축(scalar implicature) 해석을 낳는 전칭 양화(universal quantification)에 대한 추가적인 화용적 해석을 유발하며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강한 기여(speaker's strong commitment to the truth of the proposition)를 전달한다. 즉, 표현된 명제는 다른 대체 명제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

(30) [**촘스키가**]<sub>F</sub> 와도, 그 문제는 못 푼다.

위의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 Hong 은 Krifka(1995)가 제안한 강조 단언(emphatic assertion)을 위한 언표내적 연산자를 도입하였다. 아래 (31biii)이 적합성 조건에 추가로 더해진 강조된 의미부분이다. 여기서 강조의 의미는 전칭 양화를 동반한 척도 함축과 관련이 있다. F 의 모든 명제 대체항인 c∩B(F')는 주어진 명제 c∩B(F)보다 약하다. 이러한 의미적 강세는 부분집합(○) 관계로 표상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발화된 명제는 화자가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다.

- (31) EMPH ASSERTCON(<B,F>) with respect to c (Hong 2010: 180, (22)):
  - a. 명제 내용: B(F) 는 단언된다. 즉, c는 B(F)에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공통 토대(common ground) c'를 구성하고 *c'=c*∩B(F) 과 같다.
  - b. 적합성 조건:
    - i. 명제 대체항 F'가 존재하며 F와 다르다. 이때 c는 B(F')를 허용한다.
       따라서 ∃F'[F'∈ALT(F) ∧ F'≠F ∧ c∩B(F')=c].
    - ii. 일반적으로, c 는 B(F)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즉, *c*∩B(F)는 *c*∩B(F')보다 가능성이 낮다.
    - iii.  $\forall F'[[F \in ALT(F) \land F' \neq F] \rightarrow c \cap B(F) \subset c \cap B(F')]$
- (31)의 정의에 기반하여 양보문 (30)이 가지는 강조 의미 표상은 다음과 같다. 초점을 받은 촘스키는 대체항들을 발생시키고 촘스키를 포함한 문장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체항들에 대해서 전칭적으로 그러하다(Hong 2010, p. 180, (22)):
  - (32) EMPH ASSERT<sub>CON</sub>([촘스키가]<sub>F</sub> 와도, 그 문제는 못 푼다)
    - a. Propositional Content:  $c \cap \lambda w[come_w(chomsky)\&\neg problem-solved_w]$
    - b. Felicity Conditions (among others):
      - i.  $\exists F'[F' \in ALT(\lambda P\lambda w.Pw(chomsky)) \land F' \neq \lambda P\lambda w.Pw(chomsky) \land c \cap B\lambda w F_w \& \neg problem-solved_w = c].$
      - ii.  $c \cap \lambda w[come_w(chomsky)\&\neg problem-solved_w]$  is less likely than  $c \cap \lambda w[F_w[\lambda xcome_w(x)\&\neg problem-solved_w]]$
      - iii.  $\forall F'[[F \in ALT(\lambda P\lambda w. Pw(chomsky)) \land F' \neq \lambda P\lambda w. Pw(chomsky)] \rightarrow c \cap \lambda w[come_w(chomsky) \& \neg problem-solved_w] \subset c \cap \lambda w[F_w[\lambda xcome_w(x) \& \neg problem-solved_w]]$

다음 장에서는 2 장과 3 장에 서술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wh-so-ever* 무조건문을 조건문의 연접과 화용적 언표내적 연산자를 활용하여 분석하겠다.

### 4. 분석

#### 4.1 가능 세계와 문맥 집합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wh-ever* 가 가지는 의미 해석을 살핀다. wh-구는 대체항이 도출되는 집합을 제공하며 *wh-ever* 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wh-구의 지시 내에서 대체항을 발생시킨다.

- (33) a. whatever triggers alternatives  $x \in wh$ -phrase; a designated alternative is base-  $\alpha$ 
  - b. [[whatever]] w denotes...

in w0: a

in w1: b

in w2: c

...

in wn: z

위의 대체항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wh-ever 의 대체항은 앞서 3 장에서 초점 표지자가 유발하는 의미 해석과 동일하다. 즉, wh-ever XP는 초점을 받지 않아도 초점을 표지를 받는 문장과 동일한 적합성 조건(26(b)) 하에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다만 초점 표지자와 wh-ever 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wh-ever 의 대체항 영역은 실제 세계(actual worlds)가 아닌 가능 세계(possible worlds)에서 제한된다는 점에서 둘은 다름을 제안한다. <sup>2</sup> 본절에서는 wh-ever의 대체항 영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화용적 맥락에서는 실제 세계를 기반으로 한 공통 기반(common ground)과 가능 세계를 기반으로 한 문맥 집합(context set)을 구분한다. 공통 기반이란 적절한 대화 진행을 위해 대화 참여자들 간에 서로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와 지식의 집합이다(Stalnaker 1978, 2002). 반면 문맥 집합은 화자가 실제 세계의 후보로 간주하는 가능 세계의 집합이다.

(34) a. 공통 기반: 대화 참여자가 사실이라고 믿는 실제 세계의 명제 집합 b. 문맥 집합: 화자가 실제 세계의 후보라고 간주하는 세계의 명제 집합

문맥 집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문맥 집합에서 기반을 이루는 가능 세계는 믿음 세계(doxastic worlds)와 동일하며 실제 세계의 대안이다. 둘째, 문맥 집합의 믿음 세계는 화용적 측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실제 세계에 대응되는 가능 세계를 세상에 대한 지식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지나치게 예외적인(outlandish) 경우까지 고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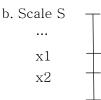
## 4.2 화용적 척도와 극성

<sup>2</sup> wh-ever의 지시와 가능 세계의 관련성은 자유 관계절(free relatives)에서도 드러난다. Wh-ever가 자유 관계절에서 사용되면 대체항은 가능 세계 내에서 양화되어 무지(ignorance) 혹은 무관심(indifference)과 같은 양태 추론(modal inference)을 가져오게 된다(Dayal 1997, von Fintel 2000, Tredinnick 2005, Lauer 2009, Condoravdi 2015).

(i) a. Whatever Arlo is cooking has a lot of garlic. [ignorance reading]
b. I simply voted for whoever was at the top of the ballot. [indifference reading]

일반적으로 화용적 강조 효과는 극성(polarity)의 의미를 가진 표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Chierchia 2006, 2013, Fauconnier 1975, Kadmon and Landman 1993, Krifka 1995). 화용적 척도 개념은 최초로 Fauconnier(1975)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는 척도의 원리를 최상급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는데, 화용적 부정극어가 맥락의 추론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최상급 표현은 긍정문이나 부정문에 모두 나타날 수 있어 통사/의미적 측면에서 부정극어로 간주하기 어렵지만, 한 극성의 문장에서만 적절한 척도 함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화용적인 측면의 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Fauconnier 1975, p. 362):

(35) a. John could solve the most difficult problem.



"low" superlative (가능성(likelihood) 가장 낮음)

- c. 명제도식 R(x)의 척도 원리: If x2 is lower than x1, then R(x2) implies R(x1).
- d. 추론: If R holds for the lowest element on S, it holds for all elements of S (i.e. R(a) entails ∀xR(x)).

Fauconnier 는 화용적 척도가 가능성의 정도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35)의 최상급 'the most difficult problem'은 존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문제이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척도점에서조차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이보다 가능성이 높은 윗 단계 척도 명제에서는 모두 참이라는 전칭양화적 상향식 추론을 유발한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척도에서의 전칭 양화 상향식 추론은 화용적 척도를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이다.

본고는 wh-ever 무조건문이 구성하는 해당 명제는 모든 대체항들보다 더 낮은 가능성을 지닌화용적 척도를 취하고 이에 따라 화용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짐을 주장한다. 이는 Krifka (1995), Israel(2011), 그리고 Chierchia (2013)에 의해 분석된 강조적 극어(emphatic polarity item)와 유사하다. 실제로 wh-so-ever 는 부사로 사용될 때 부정극어(NPI)로서 부정문에서화용적 강조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음은 Cambridge dictionary 에 등재된 whatsoever 의 예시로, not 과 no 와 같은 부정구문 뒤에 whatsoever 가 부가어로 후행하여 명제에 대한 강조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sup>3</sup>

(36) He has \*(no) respect for authority whatsoever.

\_

<sup>&</sup>lt;sup>3</sup> whatsoever이 존재 양화사와 결합하면 비강조(약화(attenuating)) 해석 혹은 무차별(indiscriminative) 해석을 발생시킨다. 이는 독일어 FCI인 irgendeinen과 유사하다. 본고는 wh-ever가 무조건절에서 사용되는 강조 효과를 다루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데이터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sup>(</sup>i) Susanne has some new lover-whatsoever now. 'Susanne hat jetzt irgendeinen neuen lover.'

(37) A: "Did you have any idea what was happening at the time?" B: "\*(None) whatsoever."

# 4.3 wh-so-ever 무조건문의 양보 효과와 강조 해석

wh-so-ever 무조건문의 의미 해석의 핵심은 양보 효과와 강조 해석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앞서 예문 (5)에서 소개한 아래의 wh-ever 무조건문에서는 마늘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에그베네딕트에도 마늘이 사용된다는 양보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38) Whatever John cooks, even egg benedict,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이 양보 효과는 삽입사 so 가 사용될 때 더 강조되는데, 아래와 같이 마늘이 들어갈 수 있는 요리의 범위가 딸기 케익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9) Whatsoever John cooks, even strawberry cake,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위의 의미 특성을 앞서 소개한 문맥 집합과 화용적 척도로 분석한다. 첫째, wh-ever 무조건문이 기반을 두는 담화는 모든 대화 참여자가 사실이라고 믿는 명제들인 공통 기반이 아니라 화자가 실제 세계의 후보라고 간주하는 세계들인 문맥 집합을 기반으로 둔다. 이 때, wh-ever 무조건문과 wh-so-ever 무조건문의 문맥 집합은 화용적 영역이 다르다. 아래 (40)에서 wh-ever 무조건문의 문맥 집합은 실제 세계에 기반한 pasta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가능 세계의 집합인 pizza 와 egg benedict 를 포함한다. 이 때 문맥 집합을 제한하는 화용적 제약은 egg benedict 까지이다.

- (40) Context: 발화자는 John 이 요리를 할 때 마늘을 주요 재료로 쓰는 것을 알고 있다. 발화자는 John 이 주로 만드는 요리가 pasta 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존이 pizza 나 egg benedict 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믿는다.
  - a.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b. Whatever Joh cooks in possible worlds:

x1 in w0: pasta x2 in w1: pizza

• • •

xn in wn: egg benedict

이와는 대조적으로 *wh-so-ever* 무조건문의 문맥 집합은 *wh-ever* 무조건문보다 더 확장될 수 있다. 아래 예시에서 나타나듯 문맥 집합은 egg benedict 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보다조금 더 화용적으로 예외적일 수 있는 strawberry cake 까지의 영역으로 넓어진다.<sup>4</sup>

<sup>&</sup>lt;sup>4</sup> 삽입사 *so를 any*와 같은 영역 확장자(domain widener; Kadmon and Landman 1993, Chierchia 2006)에 대응하는 역할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Any*는 보통 명사와 결합할 때 맥락적 차원(contextual

- (41) Context: 발화자는 John 이 요리를 할 때 마늘을 주요 재료로 쓰는 것을 알고 있다. 발화자는 John 이 주로 만드는 요리가 pasta 라고 알고 있다. 사실 John 은 어떤 요리를 하든 마늘을 핵심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만들든, 심지어 마늘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딸기 케익 같은 음식이라도, 마늘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 a. Whatso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b. Whatsoever John cooks in possible worlds:

x1 in w0: pasta x2 in w1: pizza

x3 in w2: egg benedict

• • •

xn in wn: strawberry cake

둘째, 문맥 집합의 가능 후보들로 도출된 대체 명제들의 집합은 wh-ever 과 wh-so-ever 의 영역 간에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 (42) [[whatever]] w in context (41): {pasta, pizza, ..., egg benedict}
- (43) [[whatsoever]] w in context (42): {pasta, pizza, ..., egg benedict, ..., strawberry cake}

wh-so-ever 의 지시 영역은 wh-ever 의 영역보다 더 넓으며 (43)의 영역이 (44)의 부분 집합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whatsoever 은 whatever 보다 더 가능성이 낮은 척도를 가질 수 있고 whatsoever 을 포함한 문장은 더 높은 화용적 강조의 힘을 가지게된다.

위의 해석을 기반으로 형식 분석을 진행한다. 무조건문의 양보 해석은 Hong(2010)에서 제시한 양보 구문의 해석 프레임(예문 (29))을 활용하여 제안한다 *wh-ever* 에 의해 발생하는 대체항들은 초점 구문에서 나타나는 대체항의 발생과 동일하므로 배경-초점 구조인 <B,F>를 도입할 수 있다.

- (44) a. 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b.  $\langle B,F \rangle = \langle \lambda T \lambda w. T_w(\forall p \ [\exists x \ [p = \lambda w'. \forall w'' \in F_c(w') \ [John cooks x in w'' \rightarrow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rightarrow p(w)], \lambda P \lambda w. \iota x [thing(x)(w) \wedge P(x)(w) \rangle$

위의 배경-초점 구조를 기반으로 한 wh-so-ever 무조건문의 분석은 아래와 같다. (46a)는 wh-so-ever 무조건문의 명제 내용이다. 명제 내용에서는 wh-so-ever 무조건문이 조건문의 연접(예문 (21) 참고)으로 표상될 수 있다. 적합성 조건 (45bi)은 대체항에 대한 조건이다. 적합성

dimension)에서 명사의 해석을 확장시키며 이에 따른 화용적 강조 효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wh-so-ever 무조건문 해석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지만 so는 wh-구와 결합하여 양보 해석을 발생시키고, 조건문의 연접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any와 다르다. 둘 간의 연관성 및 차이점은 본고의 논의에서 벗어나므로다루지 않도록 한다.

조건 (45bii)는 현재의 명제는 대체 명제항보다 입력 맥락에 의해 허용될 가능성이 낮음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양보 해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양보는 하나의 사태가 다른 사태에 관여한다는 기대를 부정함으로써 예상 밖의 상황을 보이는 것이므로 wh-so-ever 무조건문의 현재 명제의 발생 가능성이 낮음으로 설명 가능하다.

- (45) ASSERT<sub>CON</sub>(what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a. 명제 내용: c∩λw[∀p [∃x [p = \lambda w'.∀w"∈Fc(w') [John cooks x in w" →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 p(w)]
  - b. 적합성 조건:
    - i.  $\exists F'[F' \in ALT(\lambda P\lambda w.\iota x[thing_w(x) \land P_w(x)]) \land F' \neq \lambda P\lambda w.\iota x[thing_w(x) \land P_w(x)] \land c \cap B\lambda w F_w \& John-cooks_w(x)=c]$  where whatever triggers alternatives  $x \in wh$ -phrase; a designated alternative is base-  $\alpha$
    - ii.  $c \cap \lambda w[ \forall p [\exists x [p = \lambda w'. \forall w'' \in F_c(w')] ]$  [John cooks x in  $w'' \rightarrow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rightarrow p(w)]$  is less likely than  $c \cap \lambda w[F_w[ \forall p [\exists x [p = \lambda w'. \forall w'' \in F_c(w')]]]]$  [John cooks  $\alpha$  in  $w'' \rightarrow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rightarrow p(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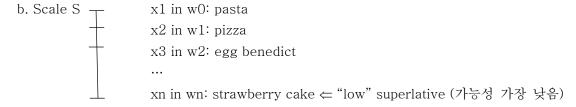
삽입사 so 가 결합된 강조된 wh-so-ever 무조건문의 분석은 아래와 같다. 초점을 받은 wh-so-ever 무조건문은 강조적 양보 연산자를 필요로 한다. 삽입사 so 는 해당 문장의 진릿값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며 의미 기여는 언표내적 연산자 역할을 한다. 앞선 wh-ever 무조건문의 의미와 강조된 wh-so-ever 무조건문의 의미 차이는 적합성 조건 (45biii)에서 드러난다. 언표내적 연산자 so 에 의해 도입된 강조 해석은 앞서 소개한 전칭 양화를 동반한 척도 함축과 관련이 있다. wh-so-ever 무조건문에서 발생한 명제는 화자가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짐을 나타낸다.

- (46) EMPH ASSERT([Whatsoever]<sub>F</sub>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 a. 명제 내용: c∩λw[∀p[∃x[p=λw'.∀w"∈Fc(w')[John cooks x in w"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 p(w)]
  - b. 적합성 조건
    - i.  $\exists F'[F' \in ALT(\lambda P\lambda w.\iota x[thing_w(x) \land P_w(x)]) \land F' \neq \lambda P\lambda w.\iota x[thing_w(x) \land P_w(x)] \land c \cap B\lambda wF_w \& John-cooks_w(x)=c] where whatever triggers alternatives x <math>\in$  wh-phrase; a designated alternative is base-  $\alpha$
    - ii.  $c \cap \lambda w[ \forall p \ [\exists x \ [p = \lambda w'. \forall w'' \in F_c(w') \ [John cooks \ x \ in \ w'' \rightarrow garlic \ is \ his \ core \ ingredient \ in \ w'']] \rightarrow p(w)]$  is less likely than  $c \cap \lambda w[F_w[ \forall p \ [\exists x \ [p = \lambda w'. \forall w'' \in F_c(w') \ [John cooks \ \alpha \ in \ w'' \rightarrow garlic \ is \ his \ core \ ingredient \ in \ w'']] \rightarrow p(w)]]$
    - iii.  $\forall F'[[F \in ALT(\lambda P\lambda w.\iota x[thing_w(x) \land P_w(x)]) \land F' \neq \lambda P\lambda w.\iota x[thing_w(x) \land P_w(x)]] \rightarrow c \cap \lambda w[\forall p [\exists x [p = \lambda w'. \forall w'' \in F_c(w') [John cooks x in w'' \rightarrow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subset c \cap \lambda w[F_w[\forall p [\exists x [p = \lambda w'. \forall w'' \in F_c(w')$

[John cooks a in w"  $\rightarrow$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in w"]]  $\rightarrow$  p(w)]]

다음은 (41)의 맥락에 기반하여 (46biii)의 문맥 집합의 원소들이 화용적 척도로 정렬된 것이다.

(47) a. Whatsoever John cooks, garlic is his core ingredient.



화용적 척도가 발생시키는 의미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기반으로 한 모든 대안적 명제가 현재 명제보다 의미적으로 약하다는 화자의 명제에 대한 기여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어떤 요리든 종류에 상관없이 마늘이 들어간다는 상황에서 보편 양화의 화용적 의미를 만들어 낸다.

## 5. 결론

본 논문은 삽입사 so 가 wh-ever 무조건문에서 결합할 때 발생하는 의미화용적 강조 효과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Hamblin 의미론을 기반으로 wh-ever 무조건문을 조건문의 연접으로 분석한 Rawlins(2013)와 양보문의 강조 효과를 언표내적 연산자를 활용하여 분석한 Hong(2010)을 기반으로 wh-ever 무조건문에서의 삽입사 so 는 초점 표지자로 분석되였다. 구체적으로 so 는 담화 내에서 명제 대체항을 유발하고 이들 간에 화용적 척도를 발생시켜 강조해석을 야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확장된 문맥 집합은 화용적 척도상에서 보편 양화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이로 인해 더 높은 양보 효과와 이에 따른 강화된 강조 의미를 동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양보 효과와 화용적 척도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so 의 의미를 규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any 가 보통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영역 확장 및 강조 해석과 wh-so-ever의 차이에 대한 명료한 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so 는 정도 부사(degree adverb)의 역할 이외에도 drama so(Irwin 2014))와 같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용법이 있다. 따라서 의미적 정도 부사에서부터 화자 중심의 화용적 강조 연산자로의 확장에 대한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의 주요 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Chierchia, G. 2006. Broaden your views: Implicatures of domain widening and the "Logicality" of language. *Linguistic Inquiry* 37, 535-590.

- Chierchia, G. 2013. *Logic in Grammar: Polarity, Free Choice, and Interven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yal, V. 1997. Free relatives and *ever*: Identity and free choice readings. *Proceedings of SALT* 7, 99-116.
- Fauconnier, G. 1975. Pragmatic scale and logical structures. Linguistic Inquiry 6, 353-375.
- von Fintel, K. 2000. Whatever. *Proceedings of SALT* 10, 27–39.
- Hamblin, C. 1973. Questions in Montague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10, 41-53.
-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USA.
- Hong, M. 2010. On addition, concession, and quantification: -to and -eto in Korean. *Eoneohag* 57, 165-191.
- Irwin, P. 2014. So [totally] speaker-oriented: An analysis of "Drama SO". *Microsyntactic variation in North American English*, 29-70.
- Israel, M. 2011. *The Grammar of Polarity: Pragmatics, Sensitivity, and the Logic of Scales.* (Vol. 12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dmon, N. and F. Landman. 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353-422.
- Kratzer, Angelika. 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337-355.
- Kratzer A. and J. Shimoyama. 2002. Indeterminate pronouns: The view from Japanese. In Y. Otsu, ed.,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Tokyo Conference on Psycholinguistics*. Tokyo: Hituzi Syobo, 1-25.
- Krifka, Manfred. 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olarity items in assertion. *Linguistic Analysis* 15, 209–257.
- Lauer, S. 2009. Free relatives with -ever: Meaning and use. [Manuscript]. Available online at http://sven-lauer.de/output/Lauer-EVER-free-relatives.pdf
- Rawlins, K. 2008. Unifying if-conditionals and unconditionals. *Proceedings of SALT* 18, 583-600.
- Rawlins, K. 2013. (Un)conditionals. Natural Language Semantics 40(2), 111-178.
- Stalnaker, R. 1978. Assertion. In P. Cole,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315–32. NY: Academic Press.
- Stalnaker, R. 2002. Common ground. Linguistics and Philosophy 25, 701-21.
- Tredinnick, V. 2005. *On the Semantics of Free Relatives with -eve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USA.
- Zaeffere, D. 1987. Unconditional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unich, Munich, Germany.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Tertiary